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주소: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8 월 25 일(다해)

연중 제 21 주일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1 독서] 이사 66,18-21

[화답송] 시편 117(116),1.2 ㄱㄴ(◎ 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 독서] 히브 12,5-7.11-13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3,22-30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337	221, 219	503,197	441

미사전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8 월 25 일	연중 제 21 주일	윤성숙	이정인	김승희	김혜원, 김태현	최은화, 전지윤	전체 친교
8 월 31 일 (토) 장소: 교육관	연중 제 22 주일	김승희	양재련	양현주	양재련, 양현주	강지유, 민서 Dickenson	베드로회
9 월 1 일	연중 제 23 주일	9 월 1 일은 St. Paul's 성당에서의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 전례 봉사자를 위한 전례 교육이 해당일 전 주 미사 후와 해당일 미사 30 분 전에 있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

에피소드 5 - 예신 모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원미동 성당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서울주보를 보듯이 원미동은 인천 교구에 속해서 인천교구 주보를 보는데 특별히 인천교구의 어린이 주보에는 자주 퀴즈를 실어 맞힌 아이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갓 전입 온 터라 담당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셨지만 종종 주보에 실린 퀴즈를 맞춰 상품이 제 이름으로 성당에 도착하고 주보에도 이름이 실려 선생님이 아 니가 그 태근이로구나 하고 알아보셨던 기억이..

그리고 한편 저 말고도 태근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잘 생긴 태근이와 그냥 태근이로 나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 생긴 태근이 일까요? 아님 그냥 태근이일까요?

암튼 하느님의 이끄심과 관련해서 들려 드릴 이야기는 어린이 주보건 성인 주보건 열심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주보를 보면서 자주 눈여겨 보던 기사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예비 성소자(예비 신학생) 모임 이었습니다.

이제사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신모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선 필수 조건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와야 하는데 예신 모임에 나가게 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본당에서 복사생활을 마친 6 학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치, 복사 = 예신 = 신부님 이라는 공식처럼 활용되어 으레 복사를 하거나 마친 상태에서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것이 부천 원미동에서 저는 복사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는 예신 모임을 나가는 이들도 없었기에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유독 그 예신 모임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하느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지향을 두고 살았던지 다시 서울로 온 중학교 2 학년 때부터는 줄곧 빠지지 않고 예신 모임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 학년 여름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참 제가 앞서 학년을 속이고 주일학교를 다녔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어찌 했을까요?
순리대로 다녔지요? 학교에서 2 학년이면 이젠 성당에서도 2 학년 했습니다.

허나 그것마저도 이젠 수월하지 않습디다. 이미 얼굴을 알고 있던 터라
그래도 그냥저냥 이래저래 눈치보고 살았습죠.
옛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네 아니네
관심 가져 고맙네 하며 다시 서울 성당의 삶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컴백과 더불어 그토록 궁금해 하던 예신 모임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위로도 밑으로도 선배도 후배도 없고 유일하게 중 2 동기들끼리 예신 모임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어렵지 않게 그들 대열에 합류했지요.

하지만 함께 한 예신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모두 떨어져 나갔죠.
가장 늦게 들어 온 저 만 유일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간 강요에 의한 출석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정녕 본인들의 갈 길을 찾아서인지 어쨌든 저 혼자만 쓸쓸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게 하나있지요.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갔는데도 예신 모임을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과학고, 외고, 하나고, 민사고, 자시고 등 특수 고등학교가 판을 치는 때에 일반계도 아니고
실업계를 간다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은 실업계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체력장 20 점에 연합고사 보고
들어갔는데 인문계 커트라인이 200 점 만점에 한 104 점이었다면 저는 통신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
커트라인은 130 점이었어요. 공부 잘해야 실업계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실업계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실업계를 갔을까요?
기술 배울려고? 아니죠 다름 아닌 남녀 공학이라 갔습죠.

중 3 때 손을 쓰지 않으면 남중에서 남고를 거쳐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웬 걸 남자 여자 정원 따로 구분없이 성적되는 사람만 뽑아서
한 반에 남학생이 45 명이면 여자는 7 명이 있었답니다.

그럼 같은 반 여학생을 사이에 두고 남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했겠군요. 라며 흑심을 품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3 학년 졸업할 때 까지 우리반 그 누구와도 썸씽이 없었지요.
제 눈이 낮아서 저의 관심을 받을 만한 여학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실업계 괜히 갔지요.

실업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기술을 익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그래서인지 학과 수업도 현장 실습 위주로 짜여 있어 결국엔 제대로 공부 하지 못한 탓에 고 3 때 신학교 원서를 쓰긴 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형편 없진 않았어요. 실업계에서도 대학 진학을 많이들 합니다.
저 역시 대학 진학을 위해 고 3 때 현장에서 일하는 척 위장 취업을 한 뒤 종합반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 3 그러고 보면 고 3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나 할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고 2 때 기말고사 성적이 반에서 28 등인가 했어요.
50 명 넘는데 절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해 중간고사 때 반에서 4 등 했고 졸업할 땐 과에서 2 등까지 했어요.
그 때 처음알았죠.
어릴적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해요" 라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나도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깍던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 머리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하얗게 할까? 까맣게 할까? 하고 묻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옛부터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니 하얗게 해 주세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발소 아저씨는 저를 스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까맣게는 바리깡에 틀을 끼워 자르는 것이고 하얗게는 틀 빼고 마치 전기 면도기르 면도하듯 그냥 미는 거였죠)

다행히도 졸업사진 찍고 난 다음이라 망정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졸업앨범에는 증명사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동아리 사진이 남아 있었죠.
아직도 저의 졸업 앨범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데 정말 환한 빛이 사진 가득 뿜어 나오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녀석이 사진 촬영하는데 카메라는 안 보고 아주 놀란 표정으로 제 머리를 보고
있느게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로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준치를 채우지 못한 탓에 대학입시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도 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슬픔이었지만
불합격자인 저를 더욱 슬프게 아니 슬프다 못해 감정적으로 더 격하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면담입니다.

성소국장 신부님과 주교님 또 학교 인사 담당 신부님 앞에서 성적표와 기타 자료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정말 시종일관 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할 정도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시던지

면담 마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내 다시는 신학교 생각이나 하나봐라 하며 이를 물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신학교가 이런 곳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성적이 부족하기로서니 어짜피 떨어뜨리면서도 왜 사람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무라실까? 예비 신학생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고 성적도 많이 올려 고 3 때에는 성적 우수상까지 탔는데도 더불어 수능시험성적도 어떤 의미에선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의 눈에는 마냥 하찮게 보였던지 꾸지람만 잔뜩 듣고는 화난 얼굴로 아니 성난 얼굴로 그렇게 면담 장소를 도망치듯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 얘긴데 괜히 그 때 담당 신부가 누구인지 역 추적하는 그런 치사한 행위는 삼가시길
저의 주관적인 얘기만 듣고선 그 신부님 참 나쁘네 하진 마시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 신부님 성은 김씨였어요.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사도로 뽑으실 때 학벌보고 뽑진 않으셨는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뽑으셨는데
만일 엘리트를 뽑을려면 바리사이를 데려다 쓰셔야지...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여튼 두 번 다시 신학교는 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고 4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업계를 다니면서도 예신 모임을 계속 다니고 신학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컷노라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신 모임을 다녀오면 마치 제가 그렇게 밝고 기뻐 보일 수 없다며 두 분이서 입을 모아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생각은 해 보지도 않고 신학교만 지원한 것인지도.

고 4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 어쩌면 사제는 내 길이 아닌 것이야, 이제 정녕 내가 하고 픈 걸 해보자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광고 홍보나 혹은 카피 라이터 같은 쪽에도 관심이 있었으니 이 제 그곳에 지향을 두고 살아야 겠다 하고 고 4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다시 신학교를 가게끔 만든 새로운 계기가 생겼으니
때는 아직 겨울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1995 년 3 월의 이른 봄 이었습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7 명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미사 시작 전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미사 중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전지윤 세라, 최은화 모니카, 송동규 니콜라오, 송지호 테오도르, 송준호 빈첸시오, 김원 프란치스코, 김린 엠마의 세례 성사가 있으며, 미사 후 성당 공터에서 친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친교는 회장단과 세례 대상자의 대부·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근 베드로 주임 신부님께서 5 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시어 베드로사목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그동안 저희 본당을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월 31 일 주일미사 (김태근 베드로 주임 신부님 송별미사): 9 월 1 일 오전 11 시 주일 미사 시간과 장소가 변동 되었습니다. 8 월 31 일 토요일 오후 5 시 교육관에서 주일 미사가 있으며, 미사 후 김태근 신부님을 위한 송별 친교가 준비 될 예정입니다. 9 월 1 일 일요일에는 St. Paul's 성당에서의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분과 : 주일 미사 전 10 시 25 분 부터 미사 시작 전까지 St. Paul 's 성당 2 층에서 Youth Group 복음서 읽기와 기도문 공부가 있습니다.

■ Youth Leadership Team Registration 2019 | Catholic Youth Ministry - Diocese of Wilmington
https://www.cdowcym.org/news/detail/youth-leadership-team-registration-2019
매년 우리 공동체에서도 모범이 되는 두 명의 청소년이 추천되어 윌밍턴 교구에서 실시되는 Youth Leadership Team (YLT)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YLT 과정은 9 월 29 일 모임을 시작으로 Pilgrimage 포함, 총 일곱번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리더쉽을 키우고 내년에 있을 사순시기 Pilgrimage 에서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이창민 프란치스코, 김혜민 마태오, 박민지 프란치스카, 이혜민 이사벨라, 김주현 라파엘, 김혜원 헬레나이며, 참가 비용($50) 전액은 본당에서 지원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일정과 장소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중에 관심있으신 분은 청소년분과 유진희 글라라 자매님께 9/15 일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참여했었던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 Backpack blessings: 8 월 31 일 미사때 청소년 친구들 새학년 Backpack blessings 이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8 월 31 일 미사 시작 전에 새학기에 사용할 Back pack 을 가져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 8 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 (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관련 문의는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St. Paul's 성당 청소:** 8/25: 2 구역, 9/15: 3 구역, 9/29: 4 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전지윤 세라, 최은화 모니카, 송동규 니콜라오, 송지호 테오도르, 송준호 빈첸시오, 김원 프란치스코, 김린 엠마, 서행부 요셉, 서영복 데레사, 김나영 줄리아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510

교무금: 서연준 7-8 월, 송정섭 8 월, 이수용 8 월, 임용주 8 월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 평일 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 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 미사 전 10 시 25 분 St. Paul's 성당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